

최태원 “무역전쟁 등 韓 폭풍우… 경제 최우선 의사결정 필요”

(대한상의 회장)

상의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

정세균 前 국회의장 등 참석
민간주도 신성장 전략 등 제언
“정치 불안요인 속히 해소돼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경쟁, 정치적 불확실성 등 4개의 폭풍이 몰려온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들을 모아 격변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 초청 간담회 열린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1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전직 경제관료 초청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무역질서와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기업이 실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시작하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될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협력해서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원로들은 현 경제위기상황의 해법으로 민간주도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정치적 불안요인도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관정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제어하기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주도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환율과 금리 등 거시금융지표를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서민계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수혜를 받은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있고 정치 혼란까지 덮쳐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며 “정치적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G엔솔, ‘차세대 전지’ 전고체 충전 신기술 개발

이온 유도로 충전속도 10배 향상
무음극 전고체전지 개발 탄력

LG에너지솔루션이 미래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전지의 충전속도 및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전지 연구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시카고대학교 셸리 명 교수가 연구한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texture)이 배터리 충전 속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에너지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줄(Joule)에 게재됐다고 12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 동안 셸리

명 교수가 이끄는 시카고대학교와 UC 샌디에고(UCSD)의 FRL(Frontier Research Lab) 연구팀과 함께 전고체전지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해 왔다.

셸리 명 교수는 전고체전지에 얇은 실리콘 층을 도입함으로써 리튬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을 제어하여 균일한 전착(전기장에 의해 전해질 내 이온이 전극의 표면에 들어붙는 일)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충전속도를 약 10배 이상 향상시키고, 배터리의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 성과

를 통해 무음극 전고체전지 개발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음극 전고체전지는 기존 음극에서 음극재를 제거하고, 충전 시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 이온을 음극에서 리튬 금속으로 환원하여 활용하는 전고체전지를 의미한다. 이 방식은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축소하면서도 에너지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리튬 금속이 균일하게 전착되지 않으면 수명과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돌파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실마리를 찾은 것이라고 회사 측

은 설명했다.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이 리튬 금속 전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얇은 실리콘 층을 도입하여 리튬 금속의 결정 성장을 제어함으로써 전고체전지의 충전 속도를 약 10배 정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와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제조 전문성과 대학의 혁신적인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고객가치를 높이고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더 기아 타스만 외관.

기아, ‘타스만’ 계약 돌입

기아가 13일 브랜드 최초 정통 픽업 트럭 ‘타스만’을 공개하고 계약에 돌입한다.

타스만의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5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최고출력 281마력, 최대토크 43.0kg·m의 동력 성능과 8.6km/L의 복합 연비를 제공한다. 특히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towing) 성능도 갖췄다.

타스만 가격은 기본 모델 다이내믹 3750만원, 어드벤처 4110만원, 익스트림 4490만원, 특화 모델 X-Pro 5240만원으로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ysw@

한번에 1000km 주행 ‘거뜰’… 고유가에도 격이 다른 클래스



벤츠 ‘E220d’

디젤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고속주행시에도 안락한 승차감

벤츠의 11세대 E220d 4MATIC 익스클루시브(이하 E220d)는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자동차’를 떠올리게 한다.

꼬마자동차 붐은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아 경주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둔다. E220d는 꽃향기는 아니지만 기름 냄새만 맡아도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오해로 한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지만 적극적인 대처와 기술 발전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거듭난 덕분이다.

최근 시승한 벤츠 E220d는 디젤 모



벤츠 더 뉴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텔이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환경 문제와 소음 등을 최소화하고 뛰어난 경제성을 확보했다.

E220d의 가장 큰 매력은 주행거리다. E220d는 4기통 디젤 엔진(OM654 M)을 장착해 최대 출력 197ps, 최대 토크 44.9kgf·m를 제공한다.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를 통해 내연기관 엔진에 추가적인 전기 공급으

로 가속 시 최대 17kW의 힘을 추가 제공하며 신속하고 부드러운 엔진 시동을 돕는다.

주행거리는 말 그대로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수준이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라남도 목포를 경유해 돌아오는 왕복 700km를 주행하고도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했다. 고급세단의 연비가 안 좋다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실제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

행한 결과 연비는 19.8km/L로 공인 연비(15.4km/L)를 훌쩍 뛰어넘었다.

실내 공간성도 부족함이 없었다. 휠베이스는 이전 세대보다 20mm 길어졌고, 운전석 헤드룸은 5mm, 뒷좌석 레그룸은 최대 17mm 증가하면서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했다. 트렁크 공간은 최대 540L까지 적재 가능하다.

고속 주행 시 차체 역시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급하게 방지턱을 통과할 때도 충격을 최소화해 탑승자에게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했다. 다만 벤츠 특유의 물컹한 승차감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한 단계 진화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편의성을 확대했다. 가장 최신 버전의 주행 보조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벤츠 E220d는 평소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을 많은 운전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모델이다. E220d의 차량 가격은 818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OLED TV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12일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55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신제품을 국내 출시한다.

신제품은 2025년 삼성 TV의 AI 신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AI 스마트 홈’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집안 기기 상태, 날씨·실내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과 집안 환경에 맞는 행동을 제안한다.

2025년형 삼성 OLED TV의 출고가는 219만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I 구독 클럽’의 요금제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